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 발대식

행진 시작하는 '95비전 2000운동

작성한 태신자 카드, 연속기도회 참가 신청서는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제출

오늘부터 50일간의 기도와 전도 운동인 '95 비전 2000의 행진이 오늘 찬양예배 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00년이 되기 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자는 목표 아래 해마다 전개하는 이 운동은 가까이는 내 친척, 내 이웃부터 우리 민족과 북한 동포, 그리고 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와 전도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올해는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 있는 자리에서 서울교회 온 성도가 기도로 만나는 <다니엘 기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에 나와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연속기도회>, 비전 2000 새벽기도회와 금요심야기도회 등의 기도 프로그램과 노방전도, 축호전도, 태신자 전도, 잃은 양 찾기 운동 등의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 전도 집회 『그 나라 2000』이 10월 27일(금)에, 초등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초청 음악예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11월 18일(토)에 각각 있다.

지난 주간 기도하며 작성한 태신자 카드와 연속기도회 참가신청서는 오늘 I, II, III부 예배 헌금 시간에 제출하면 된다. 기도카드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카드 뒷면의 <다니엘 기도 자기 점검표>를 활용하도록 한다.

'95비전 2000운동의 첫번째 기도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이다. 전도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도 배워서 전도 대상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기도로 잘 준비된 우리의 증거를 다른 사람이 예수께로 인도되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의 전도 기술이 아무리 세련되고 훌륭한 것일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도를 통해 이

웃에게 나누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부어주실 것이다.

'95비전 2000운동

"듣는 사람마다 복음전하자"

1995. 10. 8. - 11. 26. (50일간)



◎ 기도제목 ◎

1.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2. 복음 전할 기회와 환경, 그리고 생명을 주옵소서.
3.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4. 잃은 양들을 찾아 돌아오게 하며, 다락방마다 배가(倍加)되게 하옵소서.
5.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전(殿)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6.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7.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95비전 2000운동

주요행사일정

- ▶ 10월 8일/발대식, 태신자카드 제출, 1200시간 연속기도회 시작, 현판식
- ▶ 매일 오전 5시 30분 / 새벽기도회
- ▶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 다니엘 기도
- ▶ 매 주일 I, II, III부 예배후 / 전교인 노방전도
- ▶ 매 주일 찬양예배 후 / 전교인 합심기도회
- ▶ 매 주 금요일 / '비전 2000 운동 금요기도회
- ▶ 모든 모임 후 / 노방전도 및 잃은 양 찾아 나서기
- ▶ 10월 27일 / 청소년 찬양집회 『그 나라 2000』(중·고생, 대학생, 청년)
- ▶ 10월 29일 / 새가족환영회
- ▶ 11월 18일 / 어린이 초청 음악예배
- ▶ 11월 19일 / 전교인 전도 대행진
- ▶ 11월 26일 / 승전감사 예배 및 새가족 환영회

'96년도 당회 조직 확정

우리교회 당회는 내년에 수고할 당회 산하 10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지도 교역자를 확정, 발표하였다. 각 위원회와 부서는 11월 중에 조직을 완료하고 12월 초부터 임명식을 갖는다.

- 서 기 정병무 장로
- 예배위원회 최중시 장로, 장용휘 목사
- 찬양위원회 이영세 장로, 김명현 목사
- 교육위원회 나회주 장로, 원 호 목사
- 교구위원회 김광신 장로, 임진태 목사
- 전도위원회 김태기 장로, 이순환 목사
- 선교위원회 노문환 장로, 이순환 목사
- 구제위원회 이남호 장로, 최병호 목사
- 재정위원회 오정수 장로, 서기 김대호 장로, 회계 윤봉준 장로
- 건축위원회 임광식 장로, 부위원장 박철훈 장로,
- 감 사 홍정호 장로

참세기 강해



번창하는 자손들

(29장 31절 - 30장 24절)

이 중 운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12:2, 15:5, 17:2, 6).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 뿐 이었고 야곱에 이르러서 자손의 번창함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열 두 아들의 낳았고, 그들은 열 두 지파의 조상이자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I. 좌절 중에서도 결실한 레아

야곱의 아들 열 둘 중 여섯은 레아가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복이었지만 그녀는 야곱의 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의 참사랑을 받으면서도 자녀를 낳지 못한 라헬은 언니의 다산(多産)을 시기합니다(창30:1). 그들은 서로 경쟁상대가 되었으며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레아는 동정을 받아야만 할 여인입니다. 그녀는 결혼 첫날 밤, 아버지 라반과 함께 야곱을 속인 죄가 있습니다. 일부다처제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의 그늘에 가려 아무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다정함도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기보다는 한 여인에 대한 동정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여시사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레아는 라헬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의 출생과의 연결 속에서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보라 아들이라'는 뜻으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창19:32)고 말합니다.

레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을 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고백하며 이름을 시므온(Shama, hear)이라고 한 것만 보아도 그녀가 얼마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남편이 이제부터는 자신과 연합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29:34절). 그러나 야곱은 계속하여 라헬과 연합했습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은 '찬송하다'라는 뜻의 유다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생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종들의 몸에서 네 명의 아들을 낳은 후 다시 레아는 야곱의 아홉번째 아들인 잇사갈(30:18)과 열번째인 스블론(30:20)을 낳고 딸 디나(30:21)를 계속하여 낳았습니다. 레아는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겨 좌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기쁨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녀의 아들 중 레위는 제사장의 조상이 되었고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라헬의 계보가 아닌 레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좌절과 절망 중에서도 열매를 맺은 레아였습니다.

II. 아름다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라헬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어쩌면 레아보다 더 심각했을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불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표식으로 간주되던 당시 상황에서 잉태하지 못하는 그녀에게는 야곱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라헬의 초조감은 야곱에게 폭발되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30:1)고까지 말합니다. 노한 야곱은 "성태치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30:2)이라며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우쳐주려 하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의 마음은 아마도 교만으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자녀가 없게 하여 겸손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라헬의 두번째 절망적 행동은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 아이를 얻겠다는 시도였습니다. 마치 그의 조부 아브라함 때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처럼 야곱은 인간적 방법으로 라헬의 시녀 빌하에게서 단(심판했다는 뜻)과 납달리(나의 투쟁이라는 뜻)를 얻었습니다. 그 자녀는 라헬이 레아를 이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III. 합환채

여인들의 유치한 대결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레아도 자기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레아는 실바로부터 낳은 첫번째 아들을 갓(행운)이라 했고, 두번째 아들 이름을 아셀(행복)이라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보다 자녀의 수로 라헬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남편을 하루밤 레아에게 보내는 조

건으로 라헬은 레아에게서 합환채를 얻습니다. 자신의 무자한 태를 열기 위해 야곱을 레아에게 보내 주고 자기는 합환채를 먹고 아이를 낳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간 요법으로 알려진 것을 믿었던 모양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야곱이 레아에게 왔을 때 다시 임신하여 잇사갈과 스블론을 낳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 라헬이 겸손해진 뒤였습니다(30:22).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라반, 레아, 라헬, 야곱처럼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채 대결과 시기, 타협, 합환채와 같은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인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 순례자 컬럼 ✦

사람을 고쳐야

오늘날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제도를 고치고 방법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고쳐야 한다. 사람에게 훌륭한 제복을 입히고 아름다운 장식품을 달아 품위를 높이고 위풍을 당당하게 보이게 할지라도 인간의 심성이 병들고 부패해 있다면 시들어 버린 잡초처럼 악취와 독소만을 뿜어내게 마련이다.

민주화도 필요하고 경제성장이나 민족의 동질성 회복도 바람직한 것들이지만 아담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로 오염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한 세상은 더욱 더 부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간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 사욕을 좇기보다는 공익을 우선하고 편협된 이기심보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기 교정에 겸손히 힘을 쓰도록 하자.

■작년 비전 2000운동 이후 -

아이들 결혼식,
우리 부부 장례식

“서울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정 옥 수 (2교구, 가브리엘 찬양대원)

우리 가족이 서울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것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교회에 다니기는 했으나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한 후 신앙은 점차 소극적이 되어갔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좀더 잘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사할 때마다 교회의 적을 옮기다보니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 않아 답답해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집사님의 권유로 작년 비전 2000운동 기간에 서울교회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셨고, 어려서부터 멀리서만 바라보며 동경해오던 찬양대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봉사를 하다보니 소속감과 책임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믿음도 자라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던 제 남편(김영구 성도)은 몇 년 전, 동향(同鄕)인 이웃의 권고로 인간적인 의무감에 몇 번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와 주의 깊게 읽기도 하고, 일년간 빠짐없이 매주 안부를 물어오는 어떤 성도의 집요한(?) 관심을 의아해하기도 하면서 점차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나니 가족이 함께 한 교회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에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남편의 마음 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도 서울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에 오자마자 차량관리부에서 봉사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봉사를 통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믿음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월요일마다 목회자세미나 현장에서 봉사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 남편의 사업상 바쁜 일들을 제가 분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과 믿음으로 봉사할만큼 자라난 믿음의 분량을 헤아려보면... 기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인간인지라 때때로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작은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악한 길로 갈 때에 경고하시고, 절망의 때에 힘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제 삶의 산 증거들을 마음에 새기며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성수주일을 하면 큰 손해만 날 줄 알았는데 결단하고 나니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십일조, 자녀 교육 등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려 할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신 것이 우리 부부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좀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해 봅니다.

무엇보다 성도가 연합하는 교회의 생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목사님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사랑의 후린 속에 성장한 우리 가족은 서울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다혜(11살), 경덕(9살)이가 결혼식 할 교회로, 우리 부부가 장례식 할 교회로 생각하며 더 열심히 섬기려 합니다.

믿지 않던 남편에게 주님을 처음 알게 되기까지 작은 전도지, 주변의 권유, 지속적으로 보여준 관심 등이 큰 촉매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올해는 저도 네 명의 태신자를 정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궁리 중에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순례길에 만난 사람 - 김명실 집사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제 손으로 가꾼 꽃밭이 탐스러운 꽃으로 가득해 졌을 때의 기쁨을 맞습니다.” 김영구·정옥수 성도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김명실 집사는 그 가정의 봉사와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같은 아파트의 다락방 식구가 떠난 자리에 이사 온 김영구 성도의 가정을 기도하며 권유하기를 10개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 가정을 위해 금식까지 하며 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셨음은 태하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부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한다.

작년 70인 전도단을 통해 훈련을 받은 김 집사의 생활철학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 전하기. 만나는 사람마다 눈을 마주치고 사랑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 상대방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적절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자주 체험한다. 그래서 작년 비전 2000운동 기간 중에는 10명 이상 전도한 사람에게 수여한 삿갓기 시제도 수상했다. 확신과 영혼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게 되기까지 70인 전도단에서의 훈련

이 참으로 유익했다는 김 집사는 그 당시 전도에 대한 긴급한 마음으로 일터까지 바꾸며 훈련에 임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역시 주업(主業)인 전도를 하기 위한 부업으로 생각하고 있단다.

무엇보다 “기도 외에는 다른 류가 없다”고 강조하는 김집사는 올해도 두 장의 태신자 카드에 네 가정 식구들의 이름을 빼곡이 적어 두고 기도의 무릎을 연하고 있다.

영동 1 다락방자인 김 집사의 기도는 현재 여섯 가정인 영동 1 다락방이 삼십 가정이 되는 것이다.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결실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영동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된 후에는 육십 가정, 백 가정으로 부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How to tell others about Christ?”

1. 친구가 되어주라
2. 대화의 문을 열라
3. 필요를 공급하라
4. 복음을 강조하라
5. 결단을 촉구하라



- 지난 주일 설교 중에서 -

■ 광야의 소리 - '95 비전 2000운동에 붙여

Floccinaucinihilipilification

■...영어 단어 중 긴 단어로 속하는 것으로 '뜬 구름같이 여기기'의 뜻을 가지고 있다. ...■

김광신 장로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속은 차 있지 않으면서 그 속을 위장하기 위해 겉을 최고로 장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의 영어 단어에서 보듯이 글자 수가 무려 29자이지만 그 뜻은 별 볼 일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랑만 내세우고 있을 뿐 실속없는 단어로 전락하고 있고 아무도 이 단어를 사용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이 사전 속에만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익지 않은 벼이삭이고 개를 세우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세상살이가 좀처럼 원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딱 찬 내용의 사람이 그럽고 실속있는 사람이 요청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은 하지만 "내가 그 사람 입이다"라고 선언할만큼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속이 딱 찬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화려한 외출은 금하고 가을 들녘의 벼이삭처럼 여무는 인

생을 보여주기 위해 삶의 내용을 뒤집어 보아야 할 때이다.

길고 가늘게 살아가는 삶보다는 굵고 깊은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세가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니, 우리가 그 젊은이가 되어 외형만을 중시하는 현대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는 새 나라 새역사를 이끌어내야 하겠다. 주어진 삶에서 좌절과 시비가 계속되는 것은 사탄의 기호품을 깨닫고 진정한 세계가 도래하고 있음을 깨우치고 알려주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

아직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을 밤마다 뜬 구름같이 여기며 살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생동감의 원천과 미래를 알려주고 위기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산고를 담당하자.

* 김진달 집사(12교구, 분당 2다락방)는 지난 3일(화), 분당 목련마을에 (주) 타이월드를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0342 - 701 - 9154)

* 허상한 · 최재춘 집사 가정(2교구, 역삼 7다락방)은 지난 3일(화), 온양에 삼진양행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0418 - 43 - 3496)

* 탁경환 · 전정숙 집사 가정(5교구 사당 1구역)은 지난 6일(목), 양재동에 함흥냉면집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10월 9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상담을 통한 인성회복 (심상권 박사)

10월 16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운 목사)
제 2교시 / 폭력에 의한 인성 상실과 그 대안 (남재현 박사)

기습 인터뷰



● "우리의 많은 기도와 소원이 담겨 지니 새 예배당은 어떤 모습, 어떤 양식(樣式)으로 지어지든 최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성도들이 가득 찬 예배당을 꿈꾸어봅니다. '내 집을 채우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무리들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殿)이라 하셨으니 서울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질 새 예배당만큼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만 들어야 하겠습니까." (박두호 집사)

● "도래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도서실, 연구실, 자료실 등도 갖추었으면 합니다. 평신도의 지적인 욕구도 만족시켜 주고, 목회자세미나 등에 참가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도 개방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활용하도록 도움으로써 영적인 면 뿐 아니라 지적 측면에서도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한정아 집사)

레이다

오른 손이 하는 일 왼 손이 모르게

* 한국교회 갱신연구원이 주최하는 목회자세미나 현장에 지난 2일, 갑자기 수천 개의 도너츠가 배달되었다. 누가 보냈는지 진원지를 찾아보았으나 산타클로스는 끝내 자신을 감추었다. 그러나 들어온 굴뚝에 남겨진 발자국(?)을 추적한 결과, ○○교회 P장로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다.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모임을 갖고 있는 한남기독실업인회의 책임을 맡은 분으로 학기가 마칠 때마다 목회자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장본인이시다. "장로님, 그리고 내조하시는 권사님께도 감사합니다!"

* 복음의 사역자로 장신대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 두 명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이름없이 보내 주시는 K 권사님. 유명 탈렌트의 어머니로서 아들을 교회 집사로, 사회적 명사로 키우신 권사님께서 신학생을 키우고 계시니 장학금 받으신 분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실 줄로...

목회자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10일(화) 영동 CBMC 초청만찬에서 설교한다.
- * 연세대 동문 목회자들의 모임인 『연목회』가 오는 12일(목) 오후 5시, 서울교회당에서 있다. 이날 민영진 목사(대한 성서공회 번역실장)가 "비복음화된 사회 분석과 전도전략"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비전 2000운동 일곱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태신자를 위하여, 능력있는 중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